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 6:5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6년 11월 20일(주일) 제1124호

"올바르고 건강한 리더 되게 하소서"

11월 26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2016 임직예배'
임직자스쿨, 개인영성훈련 수료한 임직대상자 340명
(권사 112명, 안수집사 228명)



2016 임직예배를 11월 26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임직대상자 340명(예정)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 권사 112명(명예권사 9명, 권사 103명), 안수집사 228명(남자 83명, 여자 145명)이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임직이 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은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은색 바지 정장(흰색 블라우스)이다. 오후 2시 30분부터 서빙고 본당에서 임직예배 리허설이 진행된다. 몸이 불편해서 안수받기 어려운 임직대상자들에게는 따로 안수를 준다. 임직예배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직식 회비는 없고, 임직감사헌금은 원하는 성도만 봉헌한다. 임직예배를 드린 후에는 공동체별 모임이 이어진다. 화환과 화분 등은 정중히 사양한다.

임직대상자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된 '2016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서빙고는 11월 8일, 양재는 11월 12일 수료식을 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십, 세계를 품은 리더, 안수집사, 권사의 모델, 일터 영성, 행복한 가정과 리더, 부르심과 헌신, CGNTV,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복지재단, 사회선교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올바른 교회 리더십의 정의를 되새기고,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했다. 신약성경 통독, 새벽기도 20일 참석, 독서보고서, 20일 말씀묵상 큐티노트 제출, 봉사활동 등 개인영성훈련도 마쳤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2016년 하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5일	마포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25일	성북	한동홀	오후 6시
11월 25일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11월 25일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11월 26일	찬양사역	성가대실	오전 11시 30분
11월 27일	특별한 초대	순형홀	오후 5시
11월 29일	동대문중랑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29일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11월 29일	김포	시온홀	오후 6시
11월 29일	동작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일	OCC	EM홍보관	오후 6시
12월 1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일	강서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일	이수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일	광명	오병이어교회	오후 7시
12월 1일	노원	상현교회	오후 6시
12월 2일	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2일	강촌	한동홀	오후 6시
12월 2일	성동광진	시온홀	오후 6시
12월 2일	관악금천	비전홀	오후 6시
12월 3일	고양은평	일산비전센터	오후 5시
12월 4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전 7시 30분
12월 4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30분
12월 6일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6일	서대문	시온홀	오후 6시
12월 6일	이촌	비전홀	오후 6시
12월 8일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8일	여의도	한동홀	오후 6시
12월 9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9일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양 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5일	서초A	화평홀	오후 7시
11월 25일	양재	온유홀	오후 7시
11월 26일	서초D	드림홀	오후 6시 30분
11월 27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3시 50분
11월 27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5시
11월 29일	분당A	온유홀	오후 7시
11월 29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12월 1일	강남D	드림홀	오후 7시
12월 2일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12월 2일	강남C	온유홀	오후 8시
12월 2일	과천의왕	화평홀	오후 7시
12월 2일	분당B	드림홀	오후 6시
12월 2일	서초B	기쁨홀	오후 7시
12월 6일	강남B	화평홀	오후 7시
12월 6일	안양평촌	드림홀	오후 7시
12월 7일	강남A	화평홀	오후 7시
12월 9일	송파	화평홀	오후 7시
11월 27일	부천 믿음/희락	드림홀/경찬홀	오후 4시/5시
12월 1일	부천 소망공동체	비전홀	오후 7시 30분
12월 2일	부천 사랑/화평공동체	드림홀/비전홀	오후 7시 30분
12월 1일	수원 남누리 / 북누리	경찬홀/비전홀	오후 7시
12월 2일	수원 동누리 / 서누리	비전홀/경찬홀	오후 7시
12월 3일	대전 공동체통합	본당	오후 5시
12월 1일	남양주C	본당	오후 7시 30분
12월 2일	남양주B	본당	오후 7시 30분
12월 3일	남양주A	-	오전 10시
12월 4일	평택공동체	본당	오후 5시 30분
12월 2일	인천 공동체연합	비전홀	오후 7시 30분
12월 2일	강동A/강동B	본당	오후 7시
12월 11일	양지	박모세홀	오후 2시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

11월 22~23일 오사카 국제회의장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사카 교계는 벌써 부흥 예감에 들떠있고,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행사준비를 모두 마쳤다.

러브소나타 오사카는 11월 22일과 23일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22일 열리는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가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전야제 가스펠나이트 오사카가 막 오른다. 23일에는 리더십포럼과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가 열린다. 메인집회 러브소나타 오사카에는 박진아 작가(샌드애니메이션),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온누리워십 콰이어,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러브소나타 오사카 실행위원회는 오사카 전역에서 11차례에 걸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교단과 교파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협력교회 100개를 훌쩍 뛰어넘어 131개 협력교회를 모았다. 초대장 신청자 수도 4,506명이나 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4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봉사자교육에서는 선물 패킹, 일본어 인사 배우기, 오사카 교계 및 방문교회 안내, 종이비행기 접기, 중보기도 등을 했다.

오사카는 일본 혼슈(본섬)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제2의 상업도시다. 2007년 5월 러브소나타 집회가 울려퍼진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인 3,700명이 운집했고, 158명이 결신했다.

인물_ 묵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2면 기획_ 국내 캠퍼스 순방 '대전 온누리교회' 4-5면 특집_ 한국 기독교와 사회복지 8면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2

묵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6 예수 향기 그윽한 '파트너 원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재혁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인 진짜 묵상하는 목수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묵상하는 목수는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혁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최재혁 성도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파트너 원 인베스트먼트'는 예수 향기가 그윽한 곳이다. 사무실 한가운데 걸린 말씀 액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업정신이 매력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회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회사 대표 최재혁 성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사,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꿈꾸고 있다. 금융업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성경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다. 최재혁 성도는 매주 직원들과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다. 큐티뿐만 아니라 전 직원 아웃리치도 간다. 지난 10월 개최된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에도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의 신앙이 보석보다 빛난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업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건강한 기업이라고 평가한다. 최재혁 성도의 생각은 다르다. 물론 이윤 추구와 기업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업이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도 그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파트너 원 인베스트먼트'는 기업과 직원들의 유일한 파트너는 하나님뿐이라는 의미이다.

승승장구하던 직장인 한 순간에 나락으로

그가 운영하는 파트너 원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설립한지 2년이 막 지난 신생회사다. 대표 최재혁 성도를 비롯해 직원이 고작 6명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성과는 엄청나다. 1천억 원이 넘는 M&A를 진행할 정도로 실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성공비결을 신앙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말씀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재혁 성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고, 말씀 중심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생활과 일이 별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잘나가던 직장인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국내 10대 그룹 투자회사 본부장이었다.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일과 신앙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더군요. 20대까지만 해도 일도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가도 2~3시간씩 고속전철을 타고서라도 한인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30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또래들보다 높은 직급을 얻었지만…"

많은 연봉을 받을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결국 신앙보다 일이 우선이 되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경험했다.

"40대 초반에는 정말 잘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일터와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들여 쌓은 성과가 남의 것이 되기도 하고, 상사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맡았던 모든 조직과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했던 일도 있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직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 즈음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삶에서 저지른 죄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직장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파트너 원 인베스트먼트를 차렸다. 그는 두 번 다시 일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을 고이 간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는 정말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우리 회사도 부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시 1:1)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최재혁 성도만의 것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이 원칙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 처음에는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 주고 싶었다.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함께 큐티나눔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만 직원으로 뽑을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당에 다니는 직원, 교회에 다닌 적 있는 직원, 전혀 신앙을 모르는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직원들 모두 큐티를 하고 삶을 나누는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 마디 말보다 한 문장의 말씀이

그렇게 최재혁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물론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계약을 따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괜찮다. 격려해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 직원이 '대표님, 성경에서 경곗돌(호 5:10)을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하셨어요'라며 위로해줬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납니다."

직원들의 변화를 보면서 열 마디 말보다 한 문장의 말씀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 직원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올해 여름, 남양주 온누리교회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왔다. 아웃리치에 다녀온 직원들이 지난 10월 열린 남성들을 위한 집회 '요셉행전'에도 참석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웃리치에 이어 요셉행전까지 참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최재혁 성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직원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역시 기도가 열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최재혁 성도는 일과 신앙의 균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잘못 보이거나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일이 없거나 자금이 떨어질까 불안해하고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난이 항상 찾아오는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17~21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힘차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평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과거를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스스로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20절).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특권의식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눈과 귀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 가져다주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18~19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우상과 신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수치스런 것을 수치로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도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은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사 5:20).

나쁜것을 좋다 말하며, 쓴 것을 달다 말하는, 어둠을 빛으로 삼는 완전히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다보면 가치관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안타까움과 절박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처럼 산다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익숙해져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뿐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비교 정도가 아니라 대조가 되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대조가 되듯이, 하늘이 땅과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명백하게 대조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식민지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20절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대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라는 단어자체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역사의 상처 때문에 식민지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번역 중에서 '모펫'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하늘나라의 식민지'라는 단어로 설명해야만 하늘나라 시민권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설명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단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타락한 세상의 권세가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착취하고, 핍박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지배하는 것과 선하시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식민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다릅니다. 동일한 원리도 있습니다. 본토의 지배국의 법과 문화와 통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라고 말할 때 로마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가 빌립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도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식민지 백성들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기 하늘나라 사람들이 가고 있구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와스는 하늘나라의 식민지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식민지(colony of heaven)이며, 타 문화의 한 가운데 있는 문화의 섬이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 나그네 된 거류민(resident aliens)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

나그네 된 거류민(resident aliens)은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외국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신분이 보장이 되지만 시민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법적인 거주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신분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개만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 11~9).

〈13면에 계속〉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4

날마다 말씀 먹고 마시며

We're The Onnuri 기획_국내 10개 캠퍼스순방
5 대전 온누리교회

맞춤형 예배와 탁월한 양육으로 중부권 복음전파 중심에 서다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고, 배운 대로 섬기는 진짜 예수바보들


쪽방촌 어르신들과 함께 한 고사포 해수욕장 나들이.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대전 온누리교회다. 지방으로 뻗어나간 세 번째 캠퍼스이다. 2003년 9월 7일 창립했다. 성도 1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창립 13년 만에 2천 명으로 부흥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로부터 대전은 풍요의 땅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대전(大田)이라는 지명은 밭이 크고 넓다는 의미다. 우리말로는 대전을 '한밭'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뜻이다. 풍요로운 도시에 위치한 교회답게 대전 온누리교회에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 성도들의 배움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은혜로운 예배와 풍성한 양육 프로그램이 대전 온누리교회의 자랑이다. 365일 쉼 없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다양하고 풍성한 양육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성장한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하다. 자연스럽게 그 말씀과 사랑을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에 나눠주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다. 사회선교에도 으뜸이다. 대한민국 중부권 복음전파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창립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대전지역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다. 대한민국 중부권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비전이 교회를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대학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당시 충남대학교 앞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대학청년사역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대전 지역 성도들이 온누리교회의 자유로운 예배에 큰 감동을 받고 줄지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창립 13주년인 대전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의 교회론으로 다시 재집중하고 헌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표어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로써의 예배, 양육, 공동체, 해외선교, 사회선교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도행전적 예배

가장 먼저 사도행전적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임직자와 사역자가 많은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가족단위 성도들이 많이 드리는 2부 예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예배, 젊은 부부와 차세대 교사들이 많이 드리는 3부 예배는 자유스러운 예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회중의 특성에 맞춘 예배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예배 집중도와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주중예배에도 변화를 줬다. 수요저녁예배를 세미나 형식으로 드리고 있다. 팔복, 주기도문, 부부와 가정 등을 주제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기간에는 평균 4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었다.

성도들의 신앙성숙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생활을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1기 기도학교'를 개설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또한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생활하기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새벽기도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인공동체의 예배와 양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차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예배 헌신도가 대단히 높다. 특히 파워웨이브 고등부는 예배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차세대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목회자와 교사들이 목양과 양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순기능의 연속이다.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양육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모른다. 열심히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대전 온

나는 이래서 대전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대전은 물론 충청도 일대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교회 성도들도 언제든지 찾아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승렬 장로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OBC 이사야2 과목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 최태인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과 평신도의 구분 없이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 유병진 성도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만남을 통해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권용명 성도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5

성장하는 '대전 온누리'

누리교회다. 그만큼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부터 Basic QT 과정을 연 2회 진행했고, OBC(Onnuri Bible Club) 과정을 연 7~9회 운영했다. 양육 프로그램 과목이 확연하게 늘었다. 양육을 원하는 성도는 원하는 시간에 듣고 싶은 과목을 찾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된 덕분이다. 2014년부터 매년 성도 1,200명이 필수양육(Basic QT,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과정, OBC 등) 과정을 수료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인 성도가 1,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 교인이 필수양육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한 번 이상 과정을 수료한 성도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성도들이 너도 나도 양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뜨거운 배움 열정은 더 많은 과정, 더 다양한 과목을 만들어 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필수 양육 프로그램 외에도 북한선교학교, 와이즈 마더링, BEE, 레위기, 에베소서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사역과 일터사역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앙성숙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증거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대전 온누리교회는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인, 공무원, 교수, 연구원, 경영인 등 직업별 그룹을 만들어서 일터사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양재 가정사역팀과 함께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와 젊은부부학교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를 둘러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된다. 교회 어디를 가나 배우고 가르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 매주 주일 오후 5층 카페에 가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일대일 양육자 30명이 탄생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대학청년들에게도 전달됐다. 성인공동체를 본받아 청년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정말 대단하다. 청년들을 양육할 일대일 양육자 100명을 모집하고 있을 정도다. 가르치는 성인공동체와 배우는 청년들이 만들어 낼 시너지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배움 열정이 교회 담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중남부지역 교회로 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청주 우리사랑의교회, 대전 용전교회, 광주 은혜와사랑교회, 서산 본향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받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일대일 제자양육이 뻗어나가고 있다.

각자의 달란트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성도도 많다. 대전 온누리교회 주변에 연구단지가 많아 과학자와 연구원 성도들이 많다. 그들을 초청해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얼마 전 종강한 창조과학스쿨도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대전 창조과학팀은 차세대 여름캠프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대전 중국어예배팀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밴쿠버 아웃리치 차세대 캠프.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회선교

대전 온누리교회의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섬김의 중심에 '더사랑사역'이 있다. 더사랑사역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2015년 한 개 순이 외로운 이웃 한 명씩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금은 77개 순 중 31순이 28명의 쪽방촌,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랑에 목말라하던 이웃들이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반기는지 모른다. 지난해 여름에는 고사포 해수욕장으로 시원한 여름휴가도 다녀왔다. 어르신들이 "이런 즐거운 휴가는 난생 처음"이라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더사랑사역팀은 정말 탁월한 전도자들이다.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순모임에 참석한다. 그중 한 어르신은 세례까지 받았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내년에 사회선교본부를 신설해 더욱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쪽방촌, 요양병원 외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극진히 섬길 예정이다.

비전교회를 섬기는 교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답게 선교 열정도 남다르다.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는 성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와 손잡고 '블레싱 밴쿠버'를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 130명이 봉사자로 참석했다. 봉사자가 많았던 만큼 집회뿐만 아니라 노숙자 섬김, 차세대 캠프, Why Misson?, Basic QT 등의 사역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열기가 올해까지 이어졌다. 올해도 밴쿠버로 아웃리치를 가서 OBC 요한복음 강의를 해주고, 기도집회도 개최했다. 양육 프로그램을 나누고 집회에 참석하며 두 교회 성도들은 가족 같은 정을 나눴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받은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한규 담당목사는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전교회도 정말 온누리 가족이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같은 대학청년부와 차세대

대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빌립공동체(대학부)와 02공동체(청년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는 다양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빌립공동체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역교회 차세대를 가르치고 있다. 충남 금산 아웃리치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다. 금산 지역 교회 차세대들을 격주로 찾아가서 섬기고 있다. 금산 지역 청소년 2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혜택이 제한된 지역인 만큼 대전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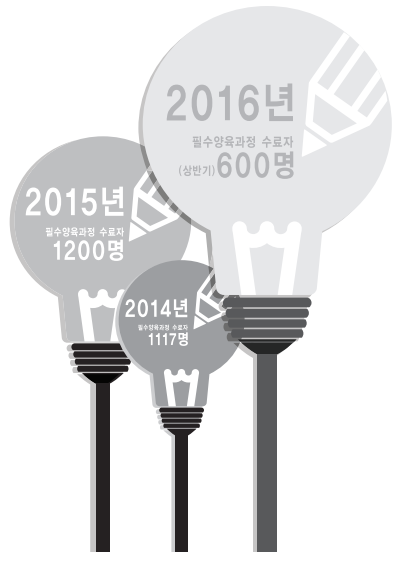
특히 02공동체는 지역사회에 성실한 청소부로 소문이 났다. 격주로 대전 둔산동 일대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둔산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가다. 02공동체 청년들은 격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금요일 밤 난장판이 된 거리가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되살아난다. 02공동체 청년들은 거리를 청소하면서 둔산동 일대에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또 차세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원동력은 교사들이다. 주일만 되면 교사들의 눈빛이 활활 불타오른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대전 차세대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다. 올해는 꿈이자라는땅(초등부)을 2년제 부서로 세분화 시켰다. 연령에 맞춘 예배를 드렸더니 차세대들의 예배 집중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위한 예배공간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대전 차세대는 지난해에 일본 오비히로지역 교회를 돕는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오비히로지역 7개 교회와 주변 차세대를 위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현지 차세대 아이들은 대전 차세대 교사, 아이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회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갔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으라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손을 번쩍 번쩍 들었다. 현지 목회자들은 "차세대 전도는 수년간 노력해도 어렵던 일인데, 대전 온누리교회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좋아했다.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양육하는 대학청년부와 차세대들 덕분에 대전 온누리교회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기대된다.

최근 3년 필수양육과정 수료자 동향



섬기는 사람들

박태영 담당목사
김관수 목사
박승재 목사
정웅규 목사
정현석 목사

나는 이래서 대전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난 동역자들과 순원들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홍예솔 성도

감사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언제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 김현정 성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 양은주 성도

예수님의 사랑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 송강숙 성도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6

이촌공동체와 대학부 하늘공동체,

마주잡은 두 손 세대 간 장벽을 허물다!



이촌공동체가 나눠 준 도시락과 편지를 들고 좋아하는 하늘공동체 청년들.

이촌공동체와 대학부 하늘공동체가 두 손을 맞잡았다. 서로에 대한 사랑, 위로, 격려, 감사, 고마움, 따뜻함, 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다. 두 공동체가 두 손을 맞잡았더니 세대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다. 둘 사이에는 훈훈하고, 달콤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국 대학생들이 썩 행복하지 않다. 낭만과 자유를 꿈꾸던 대학생활은 옛날 TV 프로그램 소재일 뿐이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문제(35.5%)'와 '취업문제(23.9%)'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40만 4천 644원인데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는 49만 원이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생활비는 32만 원이라고 한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식비(41.7%)다.

이 시대 대학생들은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눈코 뜰 새가 없다. 자취나 하숙중인 대학생들은 사정이 더 딱하다. 엄마가 해준 집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타지에서 가뜩이나 외로운데 돈도 없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더 고되다.

사랑과 정성 가득한 선물꾸러미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지치고, 외로워서 베갯잇 적시는 대학생들을 부모의 품으로 안아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촌공동체 지체들이다. 값비싸고, 귀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는 덤이다. 밖에서 사먹는 밥 한 끼도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헤아릴 정도로 마음을 썼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쳤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데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격려, 위로, 응원도 듬뿍 해줬다.

이촌공동체는 대학부 하늘공동체 학생들을 섬기는 행사를 석달 전부터 준비했다. 매주 모여 기도하고,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특순도 연습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도 준비했다. 대학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편지도 썼다. 요즘 같은 세상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면 편할텐데 한 자 한 자 정성을 기울여 직접 썼다. 그만큼 간절하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드디어, 석 달 동안 준비한 선물을 나눠줄 시간이 왔다. 11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선물꾸러미가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선물은 영상편지 상영이었다. 대학생들의 이목이 한 순간에 집중됐다. 영상편지에는 대학부 학생들의 어렵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공감한다는 어른들의 격려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이어 이촌공동체 여자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치어리더들이 등장했다. 공연을 보는 내내 대학생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깜찍한 율동과 흥겨운 찬양으로 이촌공동체와 대학부 하늘공동체가 하나 되었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세대라는 장벽이 한 순간에 허물어졌다. 그 높은 장벽을 허무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촌공동체 지체들의 진심이 대학부 하늘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에 전달됐다. 여기저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대학생들이 보였다. 곧바로 또 다른 선물이 등장했다. 대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었다. 직접 쓴 편지 350통도 전달됐다.

도시락과 편지를 받아 든 대학생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해맑았다. 그들의 미소와 눈빛만 봐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날 대학부 하늘공동체가 받은 선물은 단순히 도시락과 편지가 아니었다. 사랑 그 자체였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선물이었다.

하늘공동체 손소희(23세) 자매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오찬미(20세) 자매는 "응원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대원 목사는 "대학부 지체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촌공동체 김미숙 집사는 "대학생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했고, 김태순 성도는 "대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공동체를 위한 이촌공동체의 섬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로만 사랑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촌공동체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축이 되어있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외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촌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나라 학생(하늘공동체 부대표 MC)

사역칼럼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장로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돌아봤더니 같은 공동체 권사님과 따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 권사님의 따님은 대학부 하늘공동체에 소속 되어 있었다. 권사님께서 요즘 대학생들이 여유가 없고, 무척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진로문제, 이성문제, 가정의 아픔, 부모와의 갈등, 학교 성적과 취업준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의 사업실패 등으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셨다. 그 힘든 와중에도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견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다.

"장로님,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자는 제안이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촌공동체와 대학부 하늘공동체와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총무단이 모였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음을 모았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늘공동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이촌공동체 총무단과 하늘공동체 담당 목사님과 대표MC가 먼저 만남을 가졌다.

"식사는 순모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지체들은 역할을 나눠 섬겼다. 권사님들은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했고, 순장님들은 매주 순장성경공부 시간에 하늘공동체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여자 안수집사님들은 치어리딩 공연을 준비했다. 이촌공동체 식구들이 다함께 350장의 사랑의 손 편지도 썼다. 무엇보다 이촌공동체 담당 김홍주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대학생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대학부 하늘공동체 박대원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이촌공동체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300여 명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캠퍼스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다. 300여 명의 크리스천 대학생이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문영기 장로
(이촌공동체 담당장로)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7

입술로, 악기로,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찬양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누리교회에도 다윗과 참 많이 닮은 성도들이 있다. 입술로, 악기로, 몸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실한 신앙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로 구성된 찬양팀부터 어르신들로 구성된 찬양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찬양팀을 세대별로 소개한다.



FL미니스트리 팀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찬양팀원들의 무대는 교회뿐만이 아니다. 찬양으로 열정과 위로, 사랑과 희망, 도전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달려간다. 목소리든, 악기연주든, 몸이든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로 사용해서 찬양한다.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차세대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서빙고 예꿈 뮤지컬과 파워키즈, 양재 키즈 뮤찬팀, 온누리 세라핌합창단 등이 있다. 예꿈 뮤지컬은 6~7세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성경이야기를 재연하고 있다. 파워키즈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뮤지컬팀과 워십팀으로 나뉘어 있다.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직접 워십스쿨을 열기도 한다. 양재 키즈 뮤지컬찬양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뮤지컬 요소를 가미한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로 키즈벤처(어린이문화집회), 미자립교회 등에서 공연하고 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해외 아웃리치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베트남의 고아원, 학교에서 찬양했다.

대학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홀리임팩트와 사랑부 소속 온사랑합창단이 있다. 홀리임팩트 찬양팀은 '화요Holy Impact집회'에서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장애인예배공동체 사랑부 소속 온사랑합창단은 찬양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하 '하트하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인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서빙고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서빙고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양재 온누리횃불남성합창단, Joy N Joy팀 등이 있다.

서빙고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은 군부대, 교도소 등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서빙고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은 올해 2월 창단했다. 매주 주일 오후 9시 예배, 공동체 개강예배 등에서 찬양하고 있다. 양재 온누리횃불남성합창단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를 꿈꾸고 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목요예배를 월 1회 섬기고, 매년 두 차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Joy N Joy는 양재 여성중창단이다. 매주 주일 밤 9시 예배와 남한산성 묵상의 집과 요양원 등지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찬양팀도 있다. 온누리장로합창단, 권사합창단, 포에버합창단이 그 주인공이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러브소나타 등 교회의 중요한 행사와 이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빙고 권사합창단은 월례예배, 양재 권사합창단은 수요오전여성예배, 권사스쿨 등 예배중심 찬양사역을 섬기고 있다. 65세 이상 단원들로 구성된 포에버합창단은 온누리교회 최고령 합창단이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찬양하자'는 비전을 갖고 있다. 교도소, 맞춤전도 집회 등을 섬기고 있다.

악기로 찬양하는 팀도 있다. 국악팀 예울림과 사랑챔버, 색소폰 앙상블팀이다. 국악찬양팀 예울림은 농어촌 아웃리치, 다문화수련회 등에서 전통악기 연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챔버는 복지관, 소년원, 병원 등에서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색소폰 앙상블은 쪽방촌, 군부대 등을 찾아가 아름다운 연주로 이웃들을 위로하고 있다.

몸으로 찬양하는 팀도 있다. 바로 FL미니스트리다. FL은 'Father's Love'의 약자다. 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춤추는 예배자다. 제자훈련, 세미나, 캠프 등에서 안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캠퍼스	찬양팀	연령	연습일시	문의
서빙고	예꿈 뮤지컬	6-7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02-3215-3521
	파워키즈	초1~초6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02-3215-3525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	초1~고1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매주 주일 오후 2시	010-2561-8633
	홀리임팩트	20~30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010-8973-6125
	온사랑합창단	20~30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010-8784-6695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40~60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010-5437-1964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30~60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010-9192-6382
	권사합창단	50~80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010-5251-4270
	포에버합창단	65세 이상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매주 주일 오후 2시	010-4211-3404
	사랑챔버	20~30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15분	010-8725-6106
	예울림(국악팀)	30~60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010-4445-5957
	색소폰 앙상블	50~70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010-5289-0973
	FL미니스트리	20~50대	제자훈련,세미나 캠프(어른) 겨울, 여름학기 키즈캠프(아이) 봄학기	010-3070-5738
양재	키즈뮤찬팀	초3~초6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010-4003-3769
	온누리횃불남성합창단	30~60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010-4588-5868
	joy N joy(여성중창단)	40~50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010-4140-5309
	권사합창단	50~80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010-4789-8100
전캠퍼스	온누리장로합창단	60대 이상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010-5305-2797

사역칼럼

예배드리는 모두가 찬양팀

"할렐루야! 아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말이 "할렐루야"일 것이다. 이에 회중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을 시작한다. 이 말은 한국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다. 예배를 시작하며 히브리어로 인사를 주고받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와 '아멘'은 개역성경이나 옛 찬송가처럼 친숙하고 오래된 친구 같다.

할렐루야는 찬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히브리어 할랄(halal)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명령어가 되면 할렐루!(hallelu)로 바뀌어 '자랑하라. 칭찬하라'는 뜻이 된다. 이 명령어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jaweh)의 '야'가 붙어 할렐루야(hallelu+jah)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칭찬하라! 찬양하라는 뜻이다.

명심할 것은 찬양은 노래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과 노래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인도자의 "찬양합시다"라는 말에 노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찬양(halal)의 가장 첫째 되고, 큰 의미는 바로 '자랑'이다. 자랑(찬양)하는 방법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시편은 여러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입으로 자랑(찬양)하는 방법이다. 간증과 설교 함성과 노래 등이 그것이다. 둘째, 손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손뼉을 치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손을 높이 드는 것, 악기연주가 이에 해당한다. 교회의 밴드나 챔버팀, 방송실과 음향 엔지니어는 직접 노래를 하지 않지만 손으로 찬양(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배를 땅바닥에 밀착시켜 엎드리는 행위는 신,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과 경배의 행위였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몸의 찬양이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시편에 세 번이나 소개되어 있다. 모든 찬양의 종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FL(Father's Love) 미니스트리가 춤으로 찬양하는 대표적인 팀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찬양팀이다. 찬양사역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인도자와 회중으로 참석한 교인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찬양팀이다. 챔버는 손으로 악기 연주를, 설교자와 간증자는 입으로, 엔지니어는 기계로, 찬양사역팀은 노래로, 안내팀은 미소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자랑(찬양)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이민욱 목사
(서빙고 찬양사역팀담당)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8

특집_ 길 따라 흔적 따라

1. 기독교와 한글보급
2. 기독교와 시민운동
3. 기독교와 사회복지

기독교는 한국 사회복지의 어머니

그때처럼 봉사와 구제, 나눔으로 대(對)사회 섬겨야





▲ 1885년 세워진 광혜원.
◀ 배재학당 학생들.

정국이 시끄럽다. 민심이 들끓고, 표류하고 있다. 이럴 때 누군가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어른이 없다. 이 시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바로 지금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의 계몽운동 사례와 그 계몽운동을 이끈 선각자들을 만나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에는 사회복지 이야기가 가득하다. 모세의 율법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형제나 고통받는 형제가 있거든 식량을 만드는 행동으로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삭을 버려두는 것(레 19:9~10, 신 24:19~21), 안식년과 희년의 자선(출 23:11, 레 25:6, 25~30, 39~42, 47~54, 신 15:12~15), 십일조 몫(신 14:28, 26:12~13), 임금(賃金)의 즉시 지불(레 19:13), 저당 잡힌 물건을 되돌려 줌(레 25:35~37, 출 22:25~27), 자선 축제에 참가함에 관하여(신 16:11~14) 등 수없이 많다. 선지자들이 최선의 제사는 '자비'라고 몇 번이나 강조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무는 매우 중요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회복지사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로 찾아오셨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불구자, 나병환자, 굶주리는 자, 우는 자, 죄인, 창녀, 세리, 귀신들린 자, 박해받는 자, 억울한 자, 묶인 자, 무거운 짐 진 자, 율법을 모르는 천한 족속, 군중, 보잘 것 없는 자, 맨 끝에 앉은 자, 어린이,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한국 기독교가 쓴 빛나는 사회복지 역사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빛나는 사회복지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는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880년대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와 동시에 복지사역을 시작했다. 병원, 학교, 고아원 등을 설립해 민중계몽에 기여했다.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 근대식 병원 광혜원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30여 곳에 의료시설이 세워졌다. 서양 의술은 당시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전근대적인 미신을 없애고, 계층 간 소외의식을 제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지방의 대표적인 기독병원으로는 평양 기흘병원(1893년)과 제중병원(1895년), 대구 동산병원(1899년)과 나병원(1913년), 청주 진료소(1912년), 부산 일신병원(1893년)과 나병원(1910년), 해주 구세병원(1913년), 전주 예수병원(1904년), 원산 구세병원(1898년) 등을 꼽을 수 있다.

결핵 퇴치에도 기독교가 앞장섰다. 1920년 세브란스병원에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병원이 세워졌고, 1925년 평양 결핵 진료소, 1928년에 해주감리교 구세 결핵 요양원이 설립됐다. 심령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치료와 무지를 깨우쳐 선교의 결실을 맺었다.

교육 또한 기독교가 앞장섰다. 구한말 복잡한 정세 속에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조선인들에게 선교사들은 신학문을 가르치며 문맹퇴치에 노력했다. 또한 교육기관을 설립해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했다. 1885년 내한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목사이자 교사였다. 두 사람은 제중원과 정동 진료소 교사로 있으면서 2, 3명씩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1886년 6월 아펜젤러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아 정식 학교를 세웠다. 이를 시초로 1886년 스크랜튼 부인이 한국 최초의 현대식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을 설립했고, 언더우드는 고아들의 교육을 위해 '경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 기독학교가 세워졌다. 평양 숭실학교(1894년), 선천 신성학교(1906년), 공주 영명여학교(1905년), 전주 기전여학교(1902년), 순천 매산학교(1913년), 마산 창신학교(1906년), 대구 계성학교(1906년), 광주 수피아여학교(1908년), 부산 일신여학교(1892년), 개성 호수돈여학교(1904년) 등이 대표적이다. 1909년 당시 기독교 학교 학생이 무려 17,656명이었다. 일반학교 10,914명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았다. 이를 보면 당시 조선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1920년대 총독부의 아편전매와 공창(公娼) 보급으로 도덕적 피폐가 극에 달했을 때, 개신교는 농촌계몽운동과 절제운동, 폐창(廢娼)운동을 벌였다. 선교사들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 활동은 우리나라 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양 문물을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선구제사업과 계몽운동을 펼쳤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구 사회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기독교가 서구 원조단체와 한국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를 결성하고, 전시 및 전후복구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기독교아동복리회(현 한국복지재단), 선명회(현 월드비전), 기독교세계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수많은 NGO단체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구제에 힘썼다.

한국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1970년대 들어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해외 원조가 급감하고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를 정부와 한국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교회들은 사회구호적 차원의 봉사를 펼쳤다. 1979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 중에 부녀시설 87%, 아동 시설 91%, 양로원 67%가 기독교(개신교) 계통이었다. 1987년 사회복지 시설 166곳 종사자의 63%가 기독교인들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했다. 노숙자 확산, 실업자 증가, 중산층 급감, 파산에 따른 가정 해체, 범죄 급증에 한국 기독교가 적극 대응했다. 공공복지 시설 위탁운영, 교단 연합 차원의 사회복지 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었다. 1997년 종교별 사회복지 시설 법인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전체의 73.5%를 차지할 정도로 어느 종교보다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또 다른 통계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2010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별 사회복지 사업 관련 372개 법인 가운데 기독교가 194개로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다. 불교 104개(28%), 천주교 58개(15.6%), 원불교 14개(3.8%) 순이었다.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414개 중에서 기독교가 운영하는 시설이 188개(45.4%)로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를 합친 112곳(27%)보다 많다. 노숙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교 관련 시설 86곳 가운데 기독교가 62.8%인 5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섬김이 타 종교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개교회주의가 심해지면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윤실의 '201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여전히 타 종교보다 높았다. 기독교 35.7%, 천주교 29.3%, 불교 13.2%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가 29.2%, 불교 28%, 기독교 21.3% 순이었다. 기독교가 봉사와 구제, 나눔으로 대(對)사회 섬김이 가장 활발한데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랑 없는 복지, 단순히 물질로 돕는 복지, 거듭난 영혼을 나누지 않는 급식이라면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9

차세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5

에서는 진짜 팥죽 한 그릇에 몰락했을까?

요즘처럼 싸늘한 날씨에는 뜨끈하고 걸쭉한 팥죽이 생각나지 않나요? 가끔 씹히는 새알심은 팥죽을 즐기게 하는 손꼽히는 풍미죠. 이 맛있는 팥죽이 언급될 때마다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서'랍니다. 에서의 가족관계도를 잠깐 살펴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에서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에요.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야곱'이에요. 에서라는 이름은 태어났을 때 살색이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렇게 불리었대요. 아브라함 집안은 이리저리 유랑생활을 했지만 가업이 있었어요. 목축업이 가업인 축산 재벌이었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 아들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장남인 에서는 이 모든 재산과 권한을 이어받은 소위 '금수저'였어요.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농사에까지 손을 대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농업과 축산업에서 큰 성공을 이룬 가문이 된 것이죠. 이렇게 거부가 된 가문의 장자인 에서는 엉뚱하게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사냥과 재미를 위한 스포츠형 사냥이에요. 먹고 사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에서에게 사냥은 그저 게임(Game; 영어사전에서 '사냥감'이란 뜻도 있음)이었음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를 사냥이라고 꼽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죽하면 '중국 하(夏) 왕조의 태강이라는 왕이 100일 동안 사냥에 미쳐 있다가 궁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에요. 사실 에서는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엄청난 규모의 농사와 목축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하인들을 다스리는 MBA(경영학 석사) 공부를 통해 아브라함 가문의 고도의 실무적 경영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당시는 제사장이 없던 시절이니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주관하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쉼 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은 에서를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늘 들판을 나돌아 다니며 동물의 피 튀기는 짜릿한 사냥게임에만 미쳐 있었던 거예요. 재벌 3세였던 에서가 풍찬노숙(風餐露宿,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한데서 먹고 잠)하며 사냥했을 리 만무하죠. 아마도 경치 좋은 사냥터를 찾아다니며 호화스런 사냥 일정을 소화하며 날마다 젊은 남자의 혈기를 소모했음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나이 40에 에서가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결혼부터 하고 나서 부모에게 아내를 그것도 두 명이나 데려 온 불효자였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가문인가요? 절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불허했기에 이삭을 위하여 하란까지 종을 보내 리브가라는 순결한 며느리를 얻었고, 일부일처를 귀한 가풍으로 여기고 있는 가문 아니겠어요? 이런 가풍을 지닌 집안에 사냥에 빠진 장남이 어느 날 근본도 없는 여자 둘을 데려와 며느리라고 하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제가 이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 합니다"라고 말해요.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에요. 리브가는 경건하게 집안을 지키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더 큰 관심을 쏟았고,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려고 결심하게 돼요.

흔히들 에서라는 인물을 순간의 실수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에서의 몰락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 자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에서는 쾌락에 갇혀 값없이 주어진 장자권의 은혜를 한낱 사냥게임과 바꿔버린 사람이었어요. 이에 비해 야곱은 비록 장자권이 없는 둘째이지만 약속과 말씀이 있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 형 에서가 소홀히 여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를 얻기 위해 애쓰다가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컫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런 알궂은 두 갈래 인생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당장의 쾌락을 채워주는 '세상의 게임방'으로 내려갈 것인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직하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지.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 궁금해지네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차준구 장로가 들려주는 분노이야기 2

분노를 다루는 최고의 방법

분노는 원래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아니다. 분노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과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면 건강한 삶이 되지만, 병적으로 표현하면 병이 생긴다.

분노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어기제들이 있다.

첫째는 억압(repression)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압 때문에 자유함을 잃고 있다. 세상적인 것을 죄악시 여기고, 억압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 억압된 욕망들은 기회만 있으면 의식 밖으로 나오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무척 경건하고 조용하지만 억압된 생활 때문에 참 자유가 없다.

둘째는 합리화(rationalization)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과 소를 취한 사울에게서(삼상 15:21) 합리화를 찾아 볼 수 있다. 합리화는 자신이 분노를 느낄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유를 만들기도 한다. 동역자의 고민이나 약점을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투사(projection)다. 투사는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 태도,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목회자를 미워하는 성도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 투사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고 네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마 7:3)고 투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억압, 합리화, 투사는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들이다.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분노를 이겨냈을까?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통해 살펴보자.



요셉은 분노가 있을 만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 형들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했고, 한 순간에 노예로 전락했다. 당시 노예는 상품이었다. 노예의 생사권은 주인에게 있었다. 요셉은 헤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깊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요셉은 현실에 적응했고, 주인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의 삶이 안락해져갈 즈음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된다. 죄목은 간음죄였다. 당시 간음죄는 사형이었다. 20대 청년이 인생의 꽃도 피우기 전에 생을 마감해야 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분노가 가득했을까.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창 40:14).

요셉이 28세 때 꿈풀이 해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하소연이다. 이 말은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분에 못 이겨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요셉을 통해 분노를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차준구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송탄정신건강의학과원장)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10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추억을”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개관 14주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이하 하나로)가 지난 16일 개관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개관 14주년 감사예배는 정태경 장로의 기도, 전재표 목사의 설교, 이옥자 소장 인사, 우수 봉사자 및 직원 표창, 수기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에서 전재표 목사(산본안산공동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잡으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수기발표에서 김지유 학생은 “하나로는 나에게 꿈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고마운 곳”이라고 했고, 안태백 학생은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로를 만나서 경찰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로 개관 14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다. 개인 및 집단상담, 검정고시 교육, 각종 동아리 활동 등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강동, ‘다니엘 청년창업 캠프’ 개최

12월 3일 오후 2시 사랑홀, 3주 동안

강동 온누리교회 청년부 프라미스공동체가 청년 창업 세미나 ‘다니엘 청년창업 캠프’를 개최한다. 12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홀(10층)에서 열린다. 3주 동안 진행된다.

다니엘 청년창업 캠프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아이템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 창업기업 특허전략,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회계 관리 전략, 국내 시장동향 및 시장진입 사례 분석, 자금조달 위한 엔젤투자 및 정부지원시책 이해, 청년 CEO 사례 발표 등을 교육한다.

김창석 회장(AAI엔젤투자클럽) 외 1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한지 3년 미만 된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 무료.

문의: 02-475-9686

/ 정현주 기자



주여… 인도하옵소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종일 기도회가 열렸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800여 명이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2월 10~11일 ‘네팔맞춤전도집회’ 개최

영등포구로, 이촌공동체, 온누리M미션 연합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 12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네팔맞춤전도집회’가 막 오른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이촌공동체, 온누리M미션 네팔예배부가 손잡고 개최하는 집회다.

네팔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는 이틀 동안 진행된다. 10일(토) 저녁 7시 열리는 네팔맞춤전도집회에서는 네팔 전통공연, 안산 몽골어 예배팀의 공연, 영등포구로·이촌공동체의 특별공연, 샌드애니메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1일(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네팔부흥집회는 Praise & Worship, 설교, 결단과 헌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회를 위해 네팔 현지 목회자를 초청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주민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네팔 현지 가족들의 영상메시지 상영, 이주민들이 근무하는 회사대표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도 진행된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담당 여성민 목사는 “열악한 처우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장로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2월 3일 저녁 7시 양재 사랑홀

온누리장로합창단(OEC: Onnuri Elder Choir)이 12월 3일 저녁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온사랑합창단, 도곡챔버, 목회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장로합창단 단장 김종건 장로는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물을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면서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온누리장로합창단에는 62명의 장로들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5305-2797

/ 정현주 기자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11월 27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
대상자: 9월 10일~11월 4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이광연 허신희	한지우	마포 악보진 양선호	서빙고 배소영 송기국 정원태	신용산 김경희 서예정 유수현 이다금	용산 박유정 소진화 이희정	중종로 윤영철 임채림	S브릿지 권오선 노혜경 민창기 박동석 박하니 배원열 선지연 성종명 이소연 전종희 최예지
강서 최수민	관악금천 김시찬 최환설	북누리 권인행 장순분	성동광진 강기영 구순자 박문용 이사명	여의도 반아람	이수 김정연	찬양사역 공영현 유경희	
강촌 김다일 김보슬 정해원	광명 최용성	서대문 곽정기 노소라 최명덕		영등포구로 박인숙 오은미 조성호	이촌 김준석 오선희	한강 김민수 김지현 임순남 장제인	
고양은평 김민희 김철범	동대문중랑 안수정				일산 김정심 이연정		

Love Sonata 2016 REVIVAL JAPAN

오사카 기·도·제·목

- 11월 21일(월) 입국 통관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 11월 22일(화)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11월 23일(수) 러브소나타 초청 대상자들의 결신이 풍성하도록
- 11월 24일(목) 일본 땅에 러브소나타의 열매가 계속 열리도록
- 11월 25일(금) 일본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 11월 26일(토)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 11월 27일(주일)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가 응답되도록

NGO 더멋진세상

해외 장·단기 선교사 모집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에서 장·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감비아, 말라위, 아시아 네팔과 스리랑카이다.

장기선교사는 지역개발(농업과 건축전문가)사업을, 단기선교사는 교육, 보건, 농업,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GO 더멋진세상 소속 장·단기 선교사로 선발되면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파송된다. 11월 30일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와 자세한 모집내용 및 서류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문의: 02-2271-2246
ojm@abetterworld.or.kr

iWe, 연말 맞아 ‘썸팅 PARTY’

12월 10일 오후 4시 용산 시티파크

대학청년부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에서 연말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12월 10일(토) 오후 4시 용산 시티파크 1단지 연회실에서 ‘썸팅 PARTY’를 연다.

크리스천 청춘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파티다. 참가대상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출생한 남녀 각각 선착순 20명이다.

참가신청은 다음카페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

http://cafe.daum.net/iWetogether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11

▌평택 세례간증



참 멋진 인생으로!

/ 고미영 성도(평택 온누리교회)

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고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불교신자셨다. 새어머니를 따라 절에 몇 번 갔던 기억이 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주 신실한 불교신자셨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일 년에 몇 차례 불교행사에 참여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딸이 기독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딸이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아빠 나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남편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허락했다. 사실 뜻밖이었다. 시부모님 밑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생활하고 있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작은딸이 혹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도 했다. 딸이 종종 봉사활동을 한다며 가족여행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딸은 교회에 푹 빠져있었다.

그 뒤 딸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금의 사위를 만났다. 나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딸에게 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지를 물었더니 신앙생활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나는 한동안 속병을 앓았다. 그리고 사위가 인사를 하러 왔다. 사위의 첫인상은 무척 성실하고 지혜롭고 야무져 보였다. 안심이 되었다. 사위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다.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올봄 딸과 사위가 한국에 나와 교회를 가야 했다. 근처 평택 온누리교회에 가야겠다고 해서 우리 부부도 큰딸과 작은딸 내외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찬양이 어색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처럼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3주를 딸과 사위와 함께 예배드리고 온누리교회 새가족팀에 등록했다.

지금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삼십년 넘게 헤어져 살던 어머니와 손잡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예비 된 영혼으로 준비시키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계심을 감사드린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남양주 이주민 예배공동체 간증



"예수님이 내 친구를"

/ 윤정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는 네팔과 인도에서 온 이주민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이주민 형제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이주민 형제자매를 데리고 병원에 가 주신다.

작년 인도에서 온 아닐 형제가 조금 위험한 축농증 수술을 받았다. 인도에서부터 축농증이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농이 뼈를 녹이고, 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장 축농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를 보던 의사선생님이 조금 더 늦었으면 농이 뇌에까지 침투할 뻔 했다며 속히 수술을 권했다.

수술을 받을 돈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아닐 형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닐 형제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었다. 아닐 형제는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아닐 형제의 고향에서 온 A형제가 뇌수막염에 걸렸다. 그런데 병원에 너무 늦게 가서 뇌에까지 염증이 생겼고,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닐 형제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형제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은 성심껏 돕기 시작했다. A형제를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왔다. A형제는 차츰 뇌의 염증이 나았고, 의식이 돌아왔다. 척수까지 염증이 퍼져 걸을 수 없었지만 가족들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800만원 가까이 나온 치료비도 성도들이 힘써 연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날 즈음 휠체어를 탄 A형제가 생전 처음 교회에 방문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을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도 될 만큼 몸이 좋아진 A형제는 꼭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인도로 떠났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 본 아닐 형제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아닐 형제와 A형제를 도운 것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닐 형제가 머지않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대전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간증



배우고 익힌 것을

/ 공미정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

올해 송구영신예배에서 받은 말씀이다. 2016년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했다. 이 기대감을 안고 일대일 양육자반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미뤄온 일대일 양육자반이었기에 꼭 수료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험난하기만 했다. 양육자반을 시작하자마자 집에 문제가 생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도 안 좋아졌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싶었다. 치열한 영적싸움이 시작되었다.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해줄 것을 부탁하고 한걸음씩 전진했다. 넘어지고 깨지며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수료하겠다는 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포기 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향한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고비를 넘기면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와 기쁨을 알아갔다.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듣고, 읽기는 자주 하지만 연구, 묵상, 암송은 약했었다. 기도의 순서도 바로 알게 되었다. 균형 있는 기도로 나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다. 그동안 전도는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직접 전도 전략도 짜보고, 연습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또 성령 충만을 공부하면서 왜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꼭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전하고 싶다.

▌한강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갈렙정탐대

/ 배준학 집사(한강공동체)

한강공동체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갈렙정탐대' 20명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파송했다. 2000선교본부가 새롭게 선포한 융합선교의 일환이었다.

갈렙정탐대는 빈민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밥퍼사역'을 했다. 도시락 640개를 만들어 자카르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향했다.

그곳 사람들은 쓰레기더미 위에 판잣집을 짓고, 침출수로 몸을 씻고 산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 준 도시락은 광야에 샘솟는 생수와 같다.

우리와 함께 사역한 선교사님은 버려진 땅에 학교를 세워 그곳의 아이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세운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한강공동체 지체들도 선교사님의 비전에 동참했다. 아동복, 학용품, 상비약 등을 후원했다.

그 선교사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8%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나마 자카르타는 기독교인 인구가 20%를 넘는다고 한다.

갈렙정탐대는 인도네시아 CGNTV를 위한 '드림온 콘서트'도 섬겼다. 드림온 콘서트 중간에 선교사님들이 잠비 지역과 파푸아 지역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지역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우리는 CGNTV 위성안테나 20개를 설치했다. 우리가 설치한 첫 번째 CGNTV 안테나는 우리와 함께 동역한 선교사님 집에 설치했다. CGNTV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의 미소가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안테나를 설치한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되고, 퍼져 나가기를 기도한다.

갈렙정탐대 대원들이 선교사님께 "내년에도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제대로 융합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갈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내년에는 기드온과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그 땅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12

장로칼럼

손자사역



김의득 장로
(수원 온누리교회)

나는 할아버지 11년차이고, 곧 만 65세 어르신의 반열에 오른다. 초등학교 5학년 손녀, 3학년 손자, 2년 6개월 된 손자를 두고 있다. 첫 손녀를 만났을 때 나는 북경 온누리교회 창립예배를 준비하면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학교에 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과연 할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떤 성경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한동안 고민했다.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할아버지는 손자가 다가가서 인사드리면 잔뜩 귀여워 해주시고, 그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참 바르다"며 칭찬해주셨다. 내가 개구쟁이 손자일 때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다. 시간이 지나서 그 개구쟁이 손자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된 나는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 개념을 접목시키고 싶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점점 핵가족화 되었다. 근래에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에서부터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곤 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바쁘고 힘든 부모세대들이 어렵게 낳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제는 교회공동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세대 손주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신앙공동체의 성숙함과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차세대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그려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시니어들이 차세대 부서 분반을 1년 동안 섬기는 이른바 '손자사역' 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하면 차세대 예배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천국잔치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이들은 아마 시니어들일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면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래 전 차세대 파워웨이브를 섬긴 적이 있다. 젊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차세대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하여 함께 나눴었다. 어른들의 신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시간이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나는 올 봄 유치부 전도사님께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차세대 예배에 참석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시간을 통해 유도현이라는 손자를 얻었다. 도현이와 나는 주일마다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넘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주일날을 기다릴 때도 있다. 시니어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손자사역' 이 바로 그것이다.

권사칼럼

밥 한 끼 먹이던 날



이정연 권사
(이촌공동체)

화창하던 봄날, 이사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대학부 학생들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대학부 친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부모님과 생활의 짐을 나눠져야 하기도 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병약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늘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여유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마음이 아려왔다. 정말 가까이에 있는 온누리교회 대학생들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다.

문득, 우리 공동체 개강예배나 종강예배 때 먹는 것을 아껴서 청년들에게 밥한 끼 먹여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족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이 너희가 힘든 것 알고 있고, 너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단 한 명이라도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배부르게 먹길 바랐다. '교회' 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단 한 명에게라도 말이다. 이 마음을 대표 장로님께 말씀드리니 참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긴 여름 동안 이촌공동체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다. 워십도 준비하고, 손 편지도 썼다.

드디어 대학부 학생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그 날이 왔다. 하늘공동체 멘토님들도 함께였다. 늘 대학부와 함께하는 그분들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졌다. 멘토님들이 먼저 다가와 "정말 고맙습니다"고 인사해주셨는데 쑥스러웠다.

"주님,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 계획하시는 그 길로 이들을 인도해주소서."

이촌공동체와 하늘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도 했다. 집사님들의 치어리더 워쉽도 이어졌다.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 열심히 준비한 집사님들과 이촌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그 반응에 놀라고 감동받았다. 대학생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

어떤 학생은 손 편지를 못 받았다며 다시 뛰어오기도 했다. 받은 손 편지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놀라워했다. 대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진실 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큰 것도 아닌데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대학생들에게 이촌공동체 식구들이 감사했다. 나 또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신앙에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허원희 목사
(사회선교부 한누리사역)

이번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강력한 미국이 되기 위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경제성장만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매체와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실업률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경제성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잊을 수 없다. 그는 교회 장로였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은 없고,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경제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라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도 경제성장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오죽할까. 과연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냐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쓰지 신이치 박사는 그의 저서 〈행복의 경제학〉에서 과거 일본이 산업화를 이루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회고했다. 풍요로움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물질의 풍요는 이룩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각박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졌다. 풍요 속의 빈곤 상태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죄 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호세아 10:1~2).

이스라엘은 생산물이 많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어 죄 값을 감당하게 되었다. 왜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번성을 이루면 우상숭배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까? 어떤 사람은 인류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장을 숭배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의 성장에 모든 것을 바치는 '시장교 신자' 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이 우상숭배가 된 것이다. 신처럼 부상한 경제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성장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과거 영국이 자랑하던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를 생각해보라. 빙산이 출몰해 엔진을 멈추고 천천히 항해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선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배의 본질이라며 전속력으로 항진했다. 결국 멈추지 않은 배는 빙산과 정면충돌해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경제성장 호가 바로 타이타닉 호와 같지 않은가?

선지자 호세아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로 비유하며 열매가 많아지자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번성하자 돌기둥을 더 세웠다고 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돈 벌기 위해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 오늘날 얼마나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구입하느라 열을 올리면서 어느새 우상숭배라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금전적 부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 외모의 변형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시장교 신자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다.

20161120-1124 2_2012528 -90216 16. 11. 18. 6:54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늘의 시민권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거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않도록 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으로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대상 29:15).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1~12).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이 땅의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외롭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여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정작 여행을 가면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나그네 된 거류민들은 언제나 본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된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다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공유한다,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벧전 1:4).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이 땅의 시민권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기에 하늘나라에 재물과 관심과 에너지를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언제 발효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고, 오늘 당장 임하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21절).

우리의 천한 몸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골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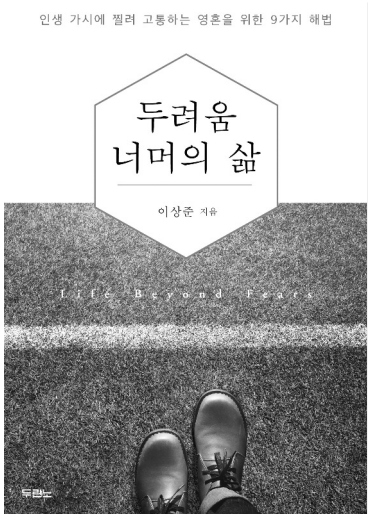
태양과 가까이 할 때 따뜻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생명이 회복되고, 참된 위로를 얻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힘차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과 여행객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객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체험으로 여깁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지겹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여행객들은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이고, 거류민이기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체험으로 여기고, 즐겁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권리를 누리는 날입니다. 위의 것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날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은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능력, 사랑, 절제



〈두려움 너머의 삶〉
이상준 저 | 두란노 | 15,000원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사람들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나 생각은 다르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흔들고, 걱정하게 만들며,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상준 목사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권면한다. 이 책 〈두려움 너머의 삶〉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준 목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말씀 안에서 묵상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이겨낼 해법을 제시한 것에 주목했다. 해법은 능력, 사랑, 절제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이상준 목사는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절제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공부의 의미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이원석 저 | 두란노 | 12,000원

독일의 시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크리스천들도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고 있다.

크리스천이 왜 공부해야 할까? 이원석 작가가 펴낸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에 그 해답이 있다. 이 책에서는 크리스천들은 서로 도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교양을 축적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함께 공부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함께 모여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찾고 싶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1124호 201611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1. 18. 오후 6:50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편집자 1명(성경공부 교재 편집)
자격: 경력 1년~5년, 신학과 전공(학사 이상), 어학능력(영어) 능숙자 우대, 장애인 우대, 보훈대상자 우대
마감: 11월 28일(월)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실시
일시: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콘서트홀
참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 발송
접수: anam73@onnuri.org
문의: 남승도 간사(02-3215-3216)

2017 샬롬 예루살렘 대회 참가자 모집
일시: 2017년 5월 27일~6월 4일
장소: 예루살렘 하이파
문의: 02-792-7076, 010-7927-7075
*자세한 사항은 kibi.or.kr 확인

사랑의줄잇기 매장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판매봉사자
장소: 신동아쇼핑센터 1층
혜택: 매장 내 상품 구입시 10% 할인
시간: 화~토 오후 1시~5시(하루 선택)
문의: 최승렬 집사(010-2209-6948)

이슬람 선교를 위한 초급 아랍어 강좌
일시: 12월 6일~2017년 2월 1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장소: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 박미애 박사
문의: 02-570-7563, ttcis@ttgu.ac.kr

BEE Korea 남여 간사모집
모집: 0명
서류: 이력서, 구원간증문
문의: 02-822-9480
접수: mail@on.microsoft.com
(11월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http://www.beekorea.org 참조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양지 영선 직원
(1년 기간제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124호 201611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1. 18. 오후 6:50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염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롱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야마나카 토모오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지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성중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상훈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박혜진 정은혜 조은혜
배랏라실리 백영미 손 숙 이주현
안희진 유비드케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제이미 한일택스타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한성 고바시사온
고인호 권효정 기호진 길혜영
김기태 김대운 김덕기 김라경
김민석 김민수 김선재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진석
김진아 김진아 김진하 김찬숙
김태환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문장원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양원
박은미 박은자 박이호 박종의
박지예 박지원 방세미 배순양
백영미 서종옥 서 철 서수민
서영희 송지은 신경훈 신대군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알빈하엘렘베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현규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미령 이선영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우람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준인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임경헌
임요한 임정남 임지훈 임호진
장동원 장유미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구현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혜 정지환
정진만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광 조성환 천정우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우윤
최재호 최정현 최현웅 커넥학요셔
하청훈 한대우 허륜호 허영은
홍세나 홍세녹 홍준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권도원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의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유신 송재길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염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도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형철
고 건 고광필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 완 김 웅 김기영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호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수역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성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회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명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일섭
송종환 송창도 신무환 신대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식 장경문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기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춘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욱 피터웰디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형식 한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형석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윤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상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실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금민희
남궁숙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지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석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지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니시야마 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승구 하카마타 미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신웅 박수환 박우람 박주영
박택근 박찬민 방지남 배인호
서성광 손병호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이한성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익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기자파이어로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얼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코바시지 메구
하보라 하보리 타케시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조성민 함선호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CMN라파팀 외국인진료 봉사자 모집
서빙고: 의사(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간호사(셋째 주일 오후 4시-6시)
안산M센터: 내과의사, 간호사
(셋째 주일 오후 2시-5시)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제8회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시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
문의: 010-5437-1964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목욕 및 안내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후설계교육 '펫시터 양성과정' 모집
내용: 동물 습성, 응급조치 등 애완동물시터 교육
장소: 용산노인복지관 3층 버금마당
대상: 만 55세 이상 어르신 중 반려동물 사육 유경험자
펫시터 구직 희망자
참여: 20명(선착순) / 수강료 20,000원
문의: 박담비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혜택: 의욕증진 나들이, VMS 봉사시간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1/11(목) 양천 박주경 권사 모친상 고 김옥금
11/12(금) 가정사역 길기창 성도 모친상 고 전순례
11/13(주일) 마포 이현태 성도 부친상, 최정은 자매 시부상 고 이화동
11/13(주일) 용산 박금순 권사
11/14(월) 서대문 오선민 집사 부친상 고 오홍근
11/14(월) 동작 이지현 집사 부친상 고 이성운
11/15(화) 양천 경정희 권사
11/15(화) 성동광진 조용학 집사 빙부상 고 김광복
11/15(화) 분당A 현월선 권사 부친상 고 현위헌
11/16(수) 과천의왕 이재용 집사 모친상 고 변우순
11/16(수) 동작 국성선 성도 부친상 고 국종

1124호 201611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1. 18. 오후 6:50 페이지 3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추수, 감사의 계절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교회와
도시를 떠나 귀농을 선택한 목사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외토하늘가마을' 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삶이 곧 공동체인 곳






방송 2016. 11. 21. (월) 오전 11시 30분
출연 김선정, 제이미스톤즈

CGNTV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KEB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